| 현불 논단 |

동계올림픽과 스포츠 포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월정사 등 강원불교 활동 '눈길'

스노보드 발전엔 불교 역할 커
달마배 대회서 양성한 6명 선수
이번 올림픽서 국가대표로 참여

이제 불교도 스포츠 포교 관심을
특히 생활체육 분야에 주목해야
관련 연구 · 인력 양성부터 나서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히는 성화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은 월정사 등 다수의 사찰과 스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원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다가온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최강의 선수들이 다양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최상의 스포츠 대회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스노보드 분야의 경기는 현 수국사 주지인 호산 스님의 기여도가 크게 돋보인다. 호산 스님은 스노보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15년 전부터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지원했다. 그 결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달마배 대회를 통해 양성한 6명의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이미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본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은 불교문화의 정수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강원지역 주요 사찰을 통해 각종 명상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전국의 사찰들은 적극적으로 올림픽 참가자와 관람객을 지원하고 사찰에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하고 동시에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으며,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다. 스포츠는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화의 길을 걸었고, 문화 영역에서는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체험욕구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2년 월드컵 대회 이후 템플스테이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동계 스포츠 종목이 대중화되고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새로 개통됨으로써 접근성도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생활스포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건강, 체험, 치유를 위해 스포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불교의 전통문화인 선무도는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사찰의 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스포츠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동물적 근성을 승화시키고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 중 다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명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불교의 참선 프로그램들을 생활수행방법으로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면 불교명상법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인들 중에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스포츠는 현대인의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고 서로 화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스포츠 포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은 투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社 說

불교 민간자격증 활용처 모색해야

최근 불교계가 민간자격 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1월 29일 불교명상 분야에 종단 공인 자격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민간자격증은 수강생들의 동기부여에서 큰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자격증 난립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증은 2만8000여개로 매년 1000개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민간자격증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종단 인증 민간자격증은 다양한 민간자격증 시장에서 종교계 공인이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자격증 취득시 활용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상담심리사'를 등록한데 이어 '불교심리상담사', '찬불가 지도사' '불교명상지도사', '불교문화포교사' 등 다양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방과후학교명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차명상지도사' '청소년 마음명상지도사' 등 불교와 접목 가능한 분야까지 진출하고 잇다.

늘어가는 민간자격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대하는 자리 또한 불교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용할 곳조차 없다면 자격증 장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배움을 미래의 삶과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교계 교육과정을 듣는 이들이 많다. 불교의 가르침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론에도 적절히 활용 가능한 부분이다.

불교계 민간자격증 시장이 형성된다면, 사회와 접목되는 다양한 민간자격증 개발도 이어질 것이다. 21세기 포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로 불교포교 저변 넓히자

불교교리를 배우는 불교대학이 변모하고 있다. 바로 불교문화 강좌로 저변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무용학과를 새롭게 신설했다. 그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풍수학과, 장례지도사학과, 수화과, 불교문화학과, 의식학과 등 재가자를 위한 다양한 과가 있어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17년에 신설된 불교문화학과는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을 등록, 전문 불교문화포교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불교교육대학도 불교무용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불교포교의 본질은 대중들이 함께 해 탈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대중들은 새로운 종교를 접할 때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심이 싹트는 것이다.

최근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불교문화를 접하고 불교 가르침을 이해, 결국 신심까지 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시도되는 문화강좌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한반도에서 20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웃종교계는 그동안 문화를 활용한 선교 등으로 발 빠르게 교세를 늘려왔다. 이제는 불교가 사회문화에 맞는 접근을 통해 다시금 교세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요익중생이다. 사찰 또한 이미지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문화의 시대다. 이에 걸맞게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포교전략이 더욱 절실하다. 불교문화 강좌 속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



신년 수상
문윤정 작가

겨울 이겨낸 새싹들을 기다리며

어느 해보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한파경보, 한파특보가 발효하는 날이 많았다. 한파와 동반한 폭설은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추위가 주춤한 날, 산책을 나섰다. 눈 덮인 호숫가를 걸었다. 두텁게 얼어붙은 호수 위로 켜켜이 쌓인 눈에 마음을 주었다. 연지(蓮池)도 꽁꽁 얼어붙었다. 동안거에 든 수련을 보면 지난날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두터운 얼음이 풀리면 수련도 기지개를 켤까. 이런 의문이 슬며시 올라온다.

하얀 눈밭 위에 의연하게 서 있는 소나무의 푸른 빛이 더욱 빛을 발한다. 하얀 수피의 자작나무에게서는 고결함이 느껴진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돋보인다. 우리에겐 나무들이 의연하고 고결하게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겨울을 견딘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 김홍인

눈밭에서 숨죽이고 있는 연약한 들풀들의 안위(安位)가 궁금하다. 한파와 폭설을 어떻게 이겨낼까. 꽃들에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리라. 꽃들은 알고 있다. 겨울이 오래도록 계속될 것 같지만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 꽃들의 이름을 호명해본다. 노란 꽃을 피우는 복수초, 주황색 꽃을 피우는 원추리, 자줏빛 꽃을 피워 올리는 맥문동, 보랏빛 꽃을 피우는 쑥부쟁이 등. 호명하는 내 마음에도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다. 꽃을 피우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는 꽃들에게 희망을 배운다.

오늘은 나무와 꽃들에게 인내와 강인함을 배운다. 방거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도 제자리를 찾아 떨어진다고 했다. 제자리를 찾아 떨어지는 눈처럼 나무와 꽃들에게도 자신의 본분이 있다. 본분을 지키면서 봄을 기다리는 것이 자신을 다독이는 일임을 자연은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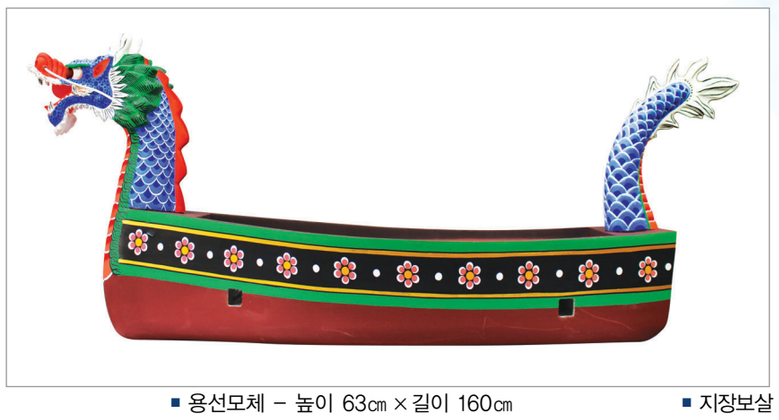
곧 설날이다. 설날 아침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고 덕담을 주고받는다.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덕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취업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조카에게, 높은 인건비 때문에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동생에게 인내의 미덕을 전할 것이다.

나무의 의연함을 배우자고, 꽃들의 강인함을 배우자고 말하고 싶다. 오늘을 잘 견디면 내일을 견딜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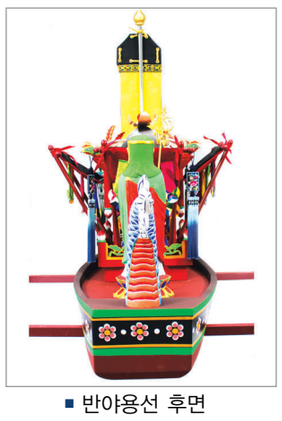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